시 론

자살하지 않는 문학

천 세 진
비평가·시인

문화에 대해 비평하려면 대중문화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TV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즐거운 일은 아니다. 비평가는 개인적 호불호를 넘어서서 선악을 미리 가르지 않고 문화적 탄생과 성장의 맥락을 짚어야 한다.

최근 주목한 것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다른 접근법의 프로그램들이다. 한동안 'S라인'을 꿈꾸는 콘텐츠들이 유행해서 걱정스러웠으나 '몸'의 문화 자체로만 본다면 스포츠를 통해 S라인과는 다른 의미로 육체를 단련하고, 자아실현을 더 높은 단계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로 꾸려진 축구와 야구, 달리기 프로그램이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다. 성별 구분이 명확했던 스포츠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적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건강한 몸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다. 몸만들기에 여전히 관심이 크지만,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운동 능력을 갖춘 몸으로 관심이 옮아가고 있다. 꾸며진 몸과 단련된 몸은 아름다움의 성격이 다르고, 다른 차원의 건강을 의미한다. 후자로의 변화는 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읽는 변화다.

그런 변화가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정신 문화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신으로 구현되는 건강미는 육체에 쏟는 노력과 발전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인스턴트형 건강미가 득세하고 있다. 자기계발서들과 쉽게 쓰인 책들의 범람, 스타들의 입에 좌우되는 독서 성향 등이 그 증거들이다.

창작 세계는 어떨까. 창작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시인의 수는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의 증가는 비판할 일이 아니다. 자격의 문제도 아니다. 고급 소비자가 생산자로 전환한 것에 대한 평가는 남아 있지만, 창작 세계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점유할 영역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작품이 탄생하고 있는가다. 마라톤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달리기는 훈련의 양이 곧바로 드러나지만, 예술 작품의 경우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작품의 탄생 배경에 그만한 훈련과 노력이 있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문학에서도 훈련을 통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최근 10여 년의 추이만 살펴보더라도 소설 분야의 경우 잔혹한 범죄 상황을 추적한 작품들, 장르문학이라고 지칭되는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쪽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사회가 작품이 다루는 수준 이상으로 잔혹해졌으니, 거울 같은 작품이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작가가 단순한 거울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샤를 보들레르(1821-1867)는 1852년 1월 발표한 비평에세이 〈세속의 학교〉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 사이에서 형제처럼 걷길 거부하는 모든 문학은 살인하는 문학이요 자살하는 문학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174년 전의 진단이 통렬하게 다가온다. 영화예술은 이미 오래전에 살인하는 예술, 자살하는 예술이 됐다. 문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영화가 문학을 가져다 사용했으니 선후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부분은 앞선 족적을 따라가는 추수(追隨)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앞서가는 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마추어는 현실의 거울이어도 좋고 즐기는 일을 중심에 둬도 되지만 프로 작가는 그러면 안 된다.

깊은 진단 없이 현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울의 문학은 현실 속에 남아 있는 삶의 불씨들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문학이다. 최상의 문학은 들여다보고 비추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병들고 아픈 현상을 과학, 철학, 종교를 동시에 동원해 뿌리까지를 이해하고 부박한 현실이 이룬 풍경의 모세혈관에 불온한 맥락이 어떤 형태로 퍼져있는지를 파악하고 치유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프로의 자격이 있다.

'세속의 학교'는 고통과 악, 불안으로 병든 삶을 피상에 고착시키도록 유혹한다. 보들레르의 경고를 무시하면 예술은 피상적 장식품이 되고 만다. 진정한 문학예술가는 고통과 불안의 땅을 깊이 파헤치고 들어가 치유의 알뿌리를 캐내야 한다. 입에 쓰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묵묵히 해내야 한다. 달리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치칼럼

공동체의 언어상

이 계 양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품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소속감, 공유하는 가치 등과 함께 사용 언어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나 정보 전달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자치공동체였던 전통 사회에서 품앗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언어습관 속에서 노동력을 주고받았으며, 또 향약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치 규범으로서 매우 강력한 공동체 언어였다.

그런데 현대 공동체의 언어들은 날카롭고 위태롭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악을 쓰며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또 님비(NIMBY·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Not In My Back Yard'의 줄임말·혐오시설 유치를 거부하는 집단행동), 핌피(PIMFY·'제발 내 앞마당에 설치해 달라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줄임말)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집단 비방이나 항의의 언어는 얼마나 날카로운가. 그리고 광기 어린 집단에 대해 침묵, 방관하는 무관심의 언어는 얼마나 위태로운가.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탐욕에 눈먼 자들의 이기적인 언어들이다. '저리 꺼져',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등의 언어 속에서 배제, 소외, 증오, 무관심이 살벌하다. 이 서슬 퍼런 언어들이 장애인과 노약자, 소수자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잔인한 언어의 춤판을 벌인다. 탐욕에 눈먼 자들의 이기적인 언어 앞에서 자치와 공동체는 설 자리를 잃고 만다. 더 슬프고 아픈 것은 이런 현실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배와 지체들〉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다.

하루는 몸의 지체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손, 발, 입, 이빨 등은 입을 모아 "우리가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저 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편히 앉아 음식만 받아먹는다. 불공평하다"고 성토했다. 이내 각자 파업하기로 했다. 발은 더 이상 음식을 얻으러 다니지 않기로 했고, 손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일을 멈췄고, 입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빨은 음식이 들어오면 절대 씹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게으른 배가 굶주림에 못 이겨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배가 고픈 것은 물론이고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없도록 점점 힘이 빠지고, 입이 바싹 말라 갔다. 거기에다 눈도 흐릿해졌으며, 다리는 힘을 잃고,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깨닫게 됐다. 겉보기에는 배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 배는 지체들이 보내준 음식을 소화해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에너지를 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지체들이 서둘러 다시 음식을 배에 공급하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결국 온몸의 지체들은 배와 함께 서서히 죽어가게 됐다. (혹은 그 후 몸의 지체들은 다시 본래의 역할을 다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 우화 속 지체들의 언어는 현대사회 공동체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배제의 언어다. 지체들은 배가 서로 연결돼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른바 언어의 파산을 보여준다. 지체들이 파산의 언어로 배를 굶김으로써 서로 연결돼 있는 손과 발과 입 나아가 다리와 온몸을 죽어가게 만든 것이다. 배를 배척하는 언어가 배뿐만 아니라 온몸을 망치듯, 배척의 언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균형과 조화를 무너뜨리게 된다,

한편 우화는 현대사회의 자치와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 바람직한 언어상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괄호 안의 이솝 우화가 시사하듯 몸의 지체들이 다시 본래의 제 역할을 다하면 온몸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건강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본래의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치의 원리 아닌가. '언능 온나!', '밥은 묵었나?', '어디 아프나?' 등 환대와 존중과 배려의 언어가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

자치공동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연결돼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환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배려와 존중과 환대가 공동체의 언어상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때 생명력을 회복하는 온몸처럼 현대사회 공동체도 활력을 회복하리라 믿는다. 언어는 도구라기보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고 또 '말이 씨' 되듯 말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독자투고

119구급대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다

119구급대원은 오직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이다.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니다. 응급 처치가 중단되고 이송이 지연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응급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감정의 분출이 아닌 '명백한 범죄'다. 소방청은 현재 모든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 없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현장에 계신 시민들께서는 대원의 안전 확보에 함께 힘을 보태주길 당부드린다. 만약 폭행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증언이나 영상 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안전한 사회는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줄 때 완성된다. 그 시작은 바로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다. 119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곧 시민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과 따뜻한 협조가 구급대원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최고의 방탄복이 된다. 〈추종민·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5극3특' 1호 전남광주특별시 성공 국가 역할 막중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교육감을 선출한다. 앞서 대구·경북,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혔다. 2월 본회의에 오른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에 한해 법사위 원포인트 회의를 요구하며 기습 중단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의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광역통합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1986년 광주직할시 분리 이후에 40년 만이다. 320만 인구 규모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과감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청년이 몰려드는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수도권 대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공공기관의 이전에도 탄력이 붙어야 한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 및 특례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더 보완해야 한다.

이젠 실행단계다. 교통 접근성과 의료·복지 강화, 좋은 일자리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돼야 한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뢰를 두텁게 해야 한다. 해서 빠른 통합 추진에 대한 파격적인 특전이 주어져야 할 게다. 충남·대전 등 다른 지역에 편성할 예정이었던 예산 일부를 광주·전남에 추가 배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최초 2년간 20조, 4년간 총 30조 수준의 국비 지원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100년을 좌우할 전략적 투자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초광역 통합 모델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비전이다. 메가시티,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이다.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1천년 독자 문화를 꽃피운 한뿌리 생활권이 다시 합쳤다. 주청사 위치와 통합의회 구성 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야 한다. 성공적 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전남광주특별시 시대를 기대한다.

0.8명대 회복 합계출산율 반등 모멘텀 이어가려면

아기 울음소리가 커졌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광주 출생아 수는 6천500명으로 전년보다 500명(8.3%) 늘었다. 2022년(7천446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명에서 0.76명으로 상승했다. 전남 출생아는 8천700명으로 500명(6.1%) 증가했다. 2020년(9천738명)에 이어 5년 만에 최대치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1.03명에서 지난해 1.10명으로 뛰었다. 전국 출생아 수는 25만4천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천100명(6.8%) 많았다. 2년 연속 느는 추세다. 증가율 기준으론 2007년(10%), 규모 기준으론 2010년(2만5천명) 이후 최대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에서 오른 0.8명을 기록했다. 4년 만에 0.8명 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인구 자연감소는 피하지 못했다. 광주 사망자 수는 9천200명, 전남은 1만9천900명으로 출생아를 크게 웃돌았다. 전국 총인구도 10만8천900명 줄었다. 6년 연속이다. 데이터처는 출생통계는 오는 8월, 사망원인통계는 9월에 확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잠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나 광주·전남을 비롯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동반 상승한 사실은 변화가 없어 보인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95년생)가 혼인과 출산 연령에 진입한데다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완화되는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인 신호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대 초반이 두드러지고, 만혼화에 따라 30대 후반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가까스로 0.8명을 찍었다. 우리나라의 출생은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어렵사리 반등 모멘텀을 확보한 만큼 구조적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혼인 건수가 급증했다. 당분간 출생 증가세로 이어질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2030년 합계출산율 1명 달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국 입장에선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아침을 여는 詩

창랑정 가는 길

김용갑

살가운 바람 부는 다리 건너
노란 무꽃 유채꽃 피던
넓은 포전 밭 보며
둑방길 촐랑촐랑 뛰어갔었지

파랗게 밀려오는 영산강 따라
밀려가는 발걸음
봄까치꽃 많이도 피어나던 길

아름드리 벚꽃 따라가면
아지랑이 피어나던
창랑정이 손짓 해댔지

뒷산 연분홍 진달래꽃
예쁜 그 꽃 따먹던
허기진 봄날이 출렁대는 곳
(시집 '수서행 기차를 타고', 시와 사람, 2024)

[시의 눈]

창랑정.나주시삼영동영산강변에있던 정자를 말한다. 정자 주인 임탁은 백호 임제의 5형제 중 막내아우이다. 영산강변에창랑정을짓고은거했다. 많은시객들이창랑정을방문했다.다투듯시문을남겼다.임탁은창랑정에서 배를 띄웠다. 배 안에서 시를 낳는다. '해당화 떨어져 다한, 물에서 물결이 일어나며, 한없는 청산이 멀리바라다보인다'이싯구는말한다.구비쳐흐르는맑은강물과강물이일으키는은빛윤슬의파닥임을.멀리청산을배경으로툭트인나주평야의호연지기를.들과강이합세한푸른맥박.생명과역동의삶의공간을.창랑정가는길의시인의고향이나주시삼영동영산강변이니어린날창랑정이안마당'노릇을하지않았나싶다.'노란무꽃유채꽃피던/넓은포전밭보며/둑방길촐랑촐랑뛰어갔었지'이장면은자아와세계가분리되지않은지극히조화로운감정상태를만나게해준다.'아지랑이피어나던/창랑정이손짓해댔지'대목또한유년의고조된봄날내면풍경을읽게한다.시인의시적모태가영산강둑방길임이틀림없다.시적자아와세계가동일화해시와삶이하나로포개어볼록볼록숨쉬고있는그곳. 〈윤삼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瓚皓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